

정답

1	④	2	②	3	①	4	③	5	②
6	④	7	②	8	①	9	③	10	④
11	①	12	①	13	③	14	②	15	②
16	③	17	④	18	④	19	③	20	③

1. [어휘/한자성어] 난이도 下

④ 부창부수(夫唱婦隨): 남편 주장에 아내가 따르는 것은 부부 화합의 도리라는 뜻

[오답 풀이]

- ①, ②, ③은 평범한 사람을 지칭하는 한자성어이다.
- ① 갑남을녀(甲男乙女): 갑이란 남자와 을이란 여자. 평범한 사람들.
- ② 초동급부(樵童汲婦): 나무 하는 아이와 물 길는 여인. 평범한 사람들.
- ③ 장삼이사(張三李四): 장씨의 셋째 아들, 이씨의 넷째 아들. 신분이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

2. [어휘/한자성어] 난이도 上

② 화이부동(和而不同): 남들과 화목하나 자신의 중심이나 원칙을 잃지 않음

[오답 풀이]

- ① 동기상구(同氣相求): 기풍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서로 동류를 찾아 모임. (유) 동성상응(同聲相應 같은 무리끼리 서로 통하고 모임)
- ③ 동성이숙(同聲異俗): 사람이 날 때는 다 같은 소리를 가지고 있으나, 자라면서 그 나라의 풍속으로 인해 서로 달라짐을 이르는 말.
- ④ 오월동주(吳越同舟):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끼리 한자리에 있게 되거나 일시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은 비유함

3. [어휘/한자어] 난이도 中

- ㉠ 分類(분류): 사물을 공통되는 성질에 따라 종류별로 가름
- ㉡ 分離(분리): 서로 나뉘어 떨어짐. 또는 그리 되게 함
- ㉢ 區分(구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갈라 나눔

4. [어휘/고유어] 난이도 中

① 곰살굿다: 성질이 싹싹하여 정겹고 다정하다. 살갑다.

5. [어휘/속담] 난이도 中

② 언 발에 오줌 누기[동족방뇨(凍足放尿)] = 임시변통 = 하석상대(下石上臺) = 고식지계(姑息之計) = 미봉책(彌縫策)

[오답 풀이]

- 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 교각살우(矯角殺牛)
- ③ 여름 불도 쪼다 나면 서운하다. → 오랫동안 해 오던 일을 그만두기는 썩 어렵다는 말.

6. [어문규정/한글 맞춤법] 난이도 中

④ 부쉬진(×) → 부서진

[오답 풀이]

- ① 시답다: 마음에 차서 만족스럽다. 주로 '시답지 않다, 시답지 못하다' 형태로 쓰인다.
- ② -배기: '그 나이를 먹은 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
- ③ 금세: '금시에'의 준말

7. [어문규정/문장 부호] 난이도 中下

② 나이(年歲)(×) → 나이[年歲]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일 때 대괄호를 쓴다.

[오답 풀이]

- ① 3·1운동(1919) → 주석이나 보충 내용을 덧붙일 때 소괄호를 쓴다.
- ③ 젊음[희망(希望)의 다른 이름] →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쓸 필요가 있을 때 바깥쪽의 괄호로 쓴다.
- ④ 같은 범주에 속하는 여러 요소를 세로로 묶어서 보일 때 중괄호를 쓴다.

8. [비문학/내용 일치 여부] 난이도 中

① '몽타주는 상형문자의 형성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법'이란 내용은 없다. 상형문자가 합해져서 회의문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몽타주의 개념을 설명하는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5, 6행의 내용에 해당한다.
- ③ 예시 내용에 해당한다.
- ④ 예시 내용에 해당한다.

9. [비문학/논지 전개] 난이도 中

노동 시장의 특징을 '생산물 시장'과 대비하여 '비교 대조'의 서술 방식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여러 이론(×), 다양한 관점(×)
- ② 여러 사례 근거(×), 비판(×)
- ④ 새로운 주장 제시(×)

10. [문학/현대소설] 난이도 中上

소장은 감독조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다. 감독조를 다른 공사장으로 보내고 다른 감독조로 교대시킬 뿐이다.

[오답 풀이]

- ① 9행에 그 내용이 나온다.
- ② 끝 문장에 나온다.
- ③ 16-18행에 나온다.

11. [문법/형태론] 난이도 中

① 허구현(×) → 허구한(○) 기본형이 '허구(許久)하다'이다.

[오답 풀이]

- ② 벌이다: 일을 계획하여 시작하거나 펼쳐 놓다
- ③ '서슴다'의 어간은 '서슴'이므로 '서슴지'가 맞다.
- ④ 서투르다/서툴다(○) → 서투른/서툰(○)

12. [문법/형태론] 난이도 中

① 굳다: 동사, 형용사 양쪽으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동사) 무른 물질이 단단하게 되다. (예) 땅이 굳는다. (형용사) 흔들리거나 바뀌지 아니할 만큼 힘이나 뜻이 강하다. 여기에서는 '동사'로 쓰였다.

[오답 풀이]

② 다르다 ③ 새롭다 ④ 아프다 - 현재형으로 활용할 수 없는 형용사들이다.

13. [문법/올바른 문장] 난이도 中

③ 마음씨 좋은 / 마음씨가 좋은 - 고친 것이 없다.

[오답 풀이]

① '목적어+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로 고친 문장이 맞다.

- ② 불러졌다(×) → 불렀다(○)
- ④ 나무에게() → 나무에(○)

14. [문법/올바른 문장] 난이도 中上
 ②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오답 풀이]

- ① ‘사업자는 ~ 동의한다.’의 문장 구조가 맞다.
- ③ ‘수단이나 도구’를 뜻하는 조사로는 ‘-으로써’가 맞다.
- ④ ‘발전과 ~ 증진에’의 구조가 맞다.

15. [문법/언어예절] 난이도 中下
 ② 회사 내에서의 언어 예절에 맞다.

[오답 풀이]

- ① ‘귀하 ~ 많이’는 서로 호응하지 않는다.
- ③ 품절이십니다(×) → 품절입니다(○)
- ④ 저희나라(×) → 우리나라(○)

16. [비문학/내용 파악] 난이도 中
 지문의 핵심어는 ‘감각’이다. 선지 중 ‘감각’의 예에 해당하는 글은 ③이다. ‘시각, 청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①, ②, ④는 지적인 인식에 관한 내용이다.

17. [문학/고대소설] 난이도 下
 ④ 외경(畏敬) = 경외(敬畏): 공경하면서 두려워함
 아내는 “양반은 한 푼 가치도 못 되는구려.” 하면서 남편을 몰아세우고 있다.

18. [문학/판소리] 난이도 中
 이 대목은 심청이 바다에 뛰어들기 직전의 비장한 장면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장면을 다양하게 제시’라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심청이 거동 보소’, ‘차마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등의 표현에 작가의 주관적 서술이 나타나 있다.
- ② 선인(船人)과 심청의 대화로 사건 전개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죽음을 초월한’이란 표현에서 혼동이 올 수 있으나, ‘심청이 죽는 일은 추호라도 싫지 아니하되 ~ ’의 표현으로 보아 인정할 수 있다.

19. [문학/고대소설] 난이도 上
 채봉감별곡: 기생이 된 채봉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이별의 슬픔을 토로하는 장면이다.
 ①, ③, ④의 시적 정서와 유사하다.
 그런데 ①은 ‘사별의 한’을 읊은 작품(공무도하가)이다. ④는 ‘대동강에서 임과 이별하는 장면’을 그린 작품(정지상 ‘송인’)이다. ③은 ‘이별 후의 슬픔과 고독’을 읊은 작품(유리왕 ‘황조가’)이다.
 그러므로 채봉감별곡의 ‘이별 후의 슬픔’을 읊은 시적 상황으로 가장 유사한 것은 ③이다.

[오답 풀이]

- ② 허난설헌 ‘빈녀음(貧女吟)’: 오언절구의 한시. 삶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여인의 고달픈 삶을 노래했다.

20. [비문학/전개 순서] 난이도 中上
 글의 전개 순서를 묻는 문제는 선지를 중심으로 풀어 간다. 지문의 처음은 (가)이다.
 (가)는 이 글의 서론이며, ‘기술 공학적 질서의 본질과 영향력’에 대한 논술이다.
 ‘기술적 질서’라는 말은 (다)로 이어진다. ‘물론’ 기술 사회가 반드시 획일화된 관리 사회나 중앙 집권적 기업 문화로만 대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모든 생산 체제는 중앙 집권적인 기업 문화를 포기할 수는 없다. ‘물론 ~ 그러나’의 (다) (나) 연결의 구조적 특징을 알면 쉽게 풀린다.
 결론은 (라)이다. ‘기술은 더 이상 ~으로만 이해되지 않는다.’ ‘기술의 체계는 이제 ~으로 기능한다.’ - 이 문장이 중심문장이다. 따라서 (가)-(다)-(나)-(라)의 문맥을 잡을 수 있다.

[종합 분석]

1. 4지 선다형 출제로 3쪽 분량(9/8/3)이다.
2. 문법 7문항 / 어휘 5문항 / 비문학 4문항 / 문학 4문항
3. 문법(7): 형태론 2, 한글 맞춤법 1, 문장 부호 1, 어법 2, 언어 예절 1
4. 어휘(5): 고유어 1, 속담 1, 한자어(한자 표기) 1, 한자성어 2
5. 비문학(4): 내용 파악 2, 논지 전개 1, 전개 순서 1
6. 문학(4): 현대소설 1, 고대소설 2, 판소리 1

7. 난이도 上 2 / 中上 3 / 中 11 / 中下 2 / 下 2

8. [총평]

- ① 문법: 전체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되지 못하고, 편중된 느낌이 있다. 음운론, 통사론, 표준어, 표준발음, 외래어, 로마자 표기법 등이 출제되지 않았다. 14번 문제 정도가 좀 어려웠다.
- ② 어휘: 한자어 출제 3문항. 2번이 어려웠다.
- ③ 비문학: 예년에 비해 출제 문항이 적었다. 지문 내용이 쉽지는 않았다.
- ④ 문학: 예년에 비해 경향이 달라졌다. 출제 문항도 4문항으로 늘었으며, 소설류에 치우쳤다. 대체로 까다로웠다.
- ⑤ 전체적으로 난이도 조절에 신경을 쓴 출제였으나, 출제 영역이 편중된 느낌이 강하다.